



손발톱 무좀신약 '주블리아' 올해 100억 목표 동아ST, 효과, 안전성 둘 다 잡은 바르는 무좀약...미국,일본 판매 1위



동아ST 주블리아

'주블리아'는 바르는 손발톱무
좀 전문치료제다.
경구치료제 수준의 우수한 치

료효과와 낮은 부작용 두 가지
장점을 갖춘 제품.
2014년 일본 카켄제약 주식회

사가 개발했으며, 2016년 동아에
스티가 카켄제약주식회사와 관
권계약을 맺고 5월 16일 국내 품
목 허가를 획득했다. 미국에서는
2014년 7월, 일본에서는 2014년
9월 발매돼, 기존제보다 우수한
효과, 경구제와 비교해서는 낮은
부작용으로 출시하자마자 시장 1
위를 차지했다.

또한 주블리아는 기존 국소
제 대비 뛰어난 약물 침투력으로
사포질 없이도 유효성분이 손
발톱의 깊은 곳까지 빠르게 도달
하며, 항균력이 탁월해 효과적
으로 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.
회사 측은 주블리아가 경구제인
이트라코나졸, 국소도포 치료제
인 시클로피록스보다 높은 진균
학적 치료율을 보였다고 설명했
다. 특히 기존 경구제의 최대 단
점인 간독성 부작용을 국소 작
용으로 아예 가능성을 차단해버
렸다는 설명이다. 이에 기존 국

소도포형 손발톱무좀 치료제로
큰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, 간 기
능·위장관 장애 등의 부작용으
로 경구용 항진균제 복용을 꺼리
는 손발톱무좀 환자들에게 새로
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회
사 측은 기대했다.

동아 측은 "기존 국소도포 제
품보다 2~3배보다 높은 항진균
효과와 경구제보다 낮은 부작용
이라는 장점"이 충분한 시장경쟁
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.
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지현 서
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"손발
톱 진균증이 아님에도 약국에서
약을 사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,
될 수 있으면 병원에 내원해서 손
발톱 진균증임을 확인하고 전문
의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질환
관리에 유리하다"고 강조했다.

동아ST는 주블리아 출시 원년
에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내세
웠다.

〈이미연 기자 / dongdongtro@naver.com〉

한미 '구구탐스' '전립선비대증+발기부전 치료제' 매일 1회 복용. 국내전문의약품 가운데 국내 최초 폴리캡 기술 적용



한미 '구구탐스'

구구탐스는 한미약품이 개발
한 전립선비대증 및 발기부전 치
료제다. 지난 달 열린 미국 비뇨

기과학회에서 발표된 구구탐스
임상 3상서 전립선 증상점수 감
소 및 성기능 개선효과가 또 한

번 입증됐다. 서방형펠렛(서서히
방출되는 과립형)인 탐스로신염
산염(TamsulosinHCl)과 속방형
(빠르게 방출) 정제인 타다라필
(Tadalafil)의 복합제. 이 제품에는
전문의약품 중 국내 최초로
폴리캡(Poly-cap)제제기술이 적
용됐다.

폴리캡은 글로벌 제약기업에서
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新
복합제제기술로, 각각의 두 성분
방출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
약물간 상호작용은 최소화했다.

국내 15개 대학병원에서 진행
된 임상 3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
효성이 입증됐다.

한미약품은 구구탐스캡슐 개
발 배경에 대해 ▶국내 전립선비
대증 및 발기부전 동반 환자의
증가세 ▶국내외 임상연구를 통
해 Tamsulosin+Tadalafil 병용요
법이 단일제 대비 하부요로증상

및 성기능개선효과입증 등으로
설명했다.

"구구탐스캡슐은 전문의약품
중 국내 최초로 폴리캡제제기술
이 적용된 전립선비대증+발기
부전치료 복합제로, 1차 치료옵
션으로써 하부요로증상및 성기
능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
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"이라고
말했다.

구구탐스 캡슐은 의사처방이
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, 복용 시
비뇨기와 전문의와의 상담이 권
장되며, 성인 기준 식후 1일 1회,
성행위 시간과 무관하게 매일 거
의 같은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.

한미약품 관계자는 "구구탐스
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국내
의료진이 임상적으로 입증한 의
미있는 제품이다. 수출 전망도 밝
다."고 설명했다. 2016년 12월 23
일 출시됐다.